

AIDS예방, 바로 우리의 과제

제6회 세계 에이즈의 날, 다양한 행사 가져

지난해 12월 1일, 제 6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이하여 AIDS예방을 호소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여러 보건단체의 주최로 열려 국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대한에이즈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에이즈 퇴치를 위한 한국시민의 모임, 대한 가족계획 협회, 대한결핵협회, 대한보건협회 등 6개 단체 주최로 열린 심포지움에서는, 「이성간 성접촉을 통한 전파예방(서울 YWCA 한정석 회장)」 「동성간의 성접촉을 통한 전파예방(한국임상성학회 유계준 회장)」, 「마약사용을 통한 전파예방(한국약물남용연구소 주왕기 소장)」, 「수혈 및 혈액제제를 통한 전파예방(김상인 전대한수혈학회 회장)」 등 “성공적인 AIDS 예방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의가 있었다.

또 한국 여의사회 주최로 가두캠페인(세종문화회관에서 시청앞)과 사진전시회(프라자호텔, 시청앞 지하차도)가 열려 AIDS예방을 위해 전 국민이 함께 노력할 것을 호소했다.

한편 심포지움을 주최한 6개 단체는 이날, “성공적인 AIDS예방을 위해 국민에게 드리는 제언”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AIDS는 결코 남의 나라 불행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닥쳐올 수

있는 재앙이다.

1. AIDS는 동성연애자, 마약중독자, 윤락여성과 같은 특수집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한 일반인들도 성접촉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다.

1. AIDS의 치료제와 백신개발이 요원한 지금, 이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방 뿐이며, 이는 건전한 성생활과 철저한 마약퇴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1. AIDS의 만연은 우리 사회의 무절제한 향락주의와 타락한 성윤리에 그 원인이 있는 만큼, 무너진 성도덕과 윤리관의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1. AIDS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나아가서 여러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건협, '93년도 종무식 가져

한국건강관리협회 본부 및 서울시지부는 지난 해 12월 31일 신축건물 홍보관에서 종무식을 갖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한해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해에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했다.

'94. 건강달력 3만부 배부

건강과 관련있는 내용 담아

보건사회부와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해 12월, '94년도 건강달력 3만부를 제작하여 배부했다.

국판질 크기에 2장으로 된 이 건강달력에는, 최근 개정·발표된 국민건강생활지침을 비롯하여 건강을 위한 식생활

방법, 금연·금주·정기 건강검사의 필요성, 129 응급환자정보센터 이용법 등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AIDS 업무 담당자 순회교육

건협 경남지부에서 가저



보건사회부와 경상남도가 주관하는 AIDS 업무 담당자 순회교육이 지난 해 11월 10일 건강관리협회 경상남도지부 홍보관에서 있었다.

이번 교육에는 경남·부산·제주도의 방역계장·보건계장 및 담당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관내 학생 대상 성교육

건협 경북지부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는 지난해 11월, 문경군·포항시·상주군 소재의 초·중·고교 6곳을 방문하여 총 3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각급 학생 수준에 맞는 비디오·슬라이드 상영과 함께 성에 관한 상담도 이루어졌다.